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치 학생 안전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

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 공식 답변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로 휴게소, 드디어 파주시 품으로



파주시는 지난 8일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11일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최종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념해 17일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5월, 당시 국지도 23호선을 관리하던 경기도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이후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됐고,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소는 이관되지 않아 경기도와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파주시는 지속된 갈등 해소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휴게소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게 쉬어갈 수 있는 활기 넘치는 휴게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24일 까지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 서인사거리 입구에서 구세군안성교회 주최로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시종식에는 안성시장, 안성시의회의장, 이덕균 구세군안성교회 담임사관, 양영호 안성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찬송, 내빈 축사, 자선냄비 시종순으로 진행됐다.

안성시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이웃 나눔을

실천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지역 내 나눔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성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인사거리 입구(구세군 안성교회) △공도 롯데마트(구세군 북안성교회) △안성휴게소 하행선(구세군 남안성교회) 3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군포역 공단에 시데이터센터 들어온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2월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SK에코플랜트㈜(솔루션 사업대표 송영규) 및 SK디앤디㈜(대표 김도현)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확산되는 인공지능 활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는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군포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행정지원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는 부지 확보, 설계, 구축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주관한다.

또한 향후 ▲AI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관련한 행정 지원 ▲인·허가 및 전력·통신 등 인프라 관련 행정절차 협의의 ▲지역 내 산업·연구·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AI 생태계 조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유치 ▲관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사용료 감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만족도 88.9%. 건강·활동 지표 개선↑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 1년간 사업 추진을 통한 일상 변화, 정책 성과 등 공유

성과연구, 우수사례, 공연, 체험부스까지 도민 참여형 행사 구성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 중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의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 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회복,



자기결정과 성취감 강화, 의료 이용 감소 등의 참여자 반응도 확인됐다.

이어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어디나 돌봄’ 중 장애인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성과도 분석했다.

연속(2024~2025년) 참여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속 참여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5.6%로 미참여 집단보다 15.8%p 높았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참여 전 보호자의 주된 돌봄시간이 평일 7~23시간에서 0~6시간으로, 주말 주된 돌봄시간은 19~24시간에서 7~12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촉식을 비롯해 우수 참여자

및 우수사례 시상, 어디나 돌봄 수행기관 유공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

행사 분위기를 더하기 위한 축하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축하공연으로 ‘꿈자라다 오케스트라’, ‘다소니 뮤지컬단’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장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및 우리공예’, ‘체력측정’, ‘웃음, 원예, 디지털 드로잉, 캐리커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과 어디나 돌봄은 단순 지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하루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변화의 기록을 도민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워크숍 성료

23개 가맹단체 참석…2025년 사업 점검·2026년 정책 방향 공유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17일까지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2025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39개 가맹단체 중 23개 단체의 회장단이 참석해 사업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목육성팀 ▲선수육성지원팀 ▲대외운영팀 3개 부서가 참여해 2025년 사업운영 현황을 부서별로 발표하고, 2026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 리더십 교육에서는 가맹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책임성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고, 가맹단체와의 소통 및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김효식 회장은 “가맹단체를 운영하며 평소 고민했던 부분을 직접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올 한해 추진된 사업을 현장

에서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

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 체육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김동연 지사님의 도민 중심의 체육 복지 실현의 뜻을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대상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19일부터 접수 시작…보안컨설팅부터 보안장비 임대지원까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예방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용인특례시 특화형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해

2026년 12월까지 총 16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안컨설팅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 ▲보안장비(방화벽) 임대 등이다.

보안컨설팅은 기초와 심층 컨설팅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초 컨설팅에서는 보안환경 점검과 취약점 진단을 통해 기업이 자체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층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보안 규정·지침 제정과 중·장기 보안 관리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필요에 따라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등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보안장비(방화벽) 임대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며,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보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안양시, 연말 맞이 ‘도전! 건강

골든벨’ 퀴즈 이벤트 개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25년 연말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의 건강 상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도전! 건강 골든벨’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안양시 건강정보채널‘건강ON 안양’을 통해 진행되며, 신체활동 실천, 건강 식생활, 심뇌혈관질환 예방, 흡연 예방, 음주폐해 예방 등 총 5개 분야의 건강 상식을 담은 O·X 퀴즈와 객관식 문제 10문항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에서 ‘건강ON 안양’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채널 내 게시된 ‘건강상식 힌트’ 교육자료를 참고해 ‘도전! 건강 골든벨’ 설문 링크에서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퀴즈는 1인당 1회만 응답 가능하며, 만점자 중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연말을 맞아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지식을 직접 학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ON안양’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안구보건소는 건강전문 소통 플랫폼 카카오톡 ‘건강ON안양’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채널을 통해 ▲건강 소식 제공 ▲건강 웰린지·캠페인 ▲실시간 건강 1:1 상담 ▲시민의 건수령 및 설문조사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요청

성남시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분당중앙과학고(현 분당중앙고)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모집인원의 40%를 관내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3층 아레나홀(수원 이의동)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도입 방안 포럼’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은 “성남시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와 참여, 45개교 2만3233명 중 학생의 높은 학구열과 학업 성취도, 성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 시유지와 예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인재 선발 40% 비율 반영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다수의 대기업과 첨단 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어 과학고 교육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학교·기업 간 미래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하고 작은가게 지원 나선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점 기준 확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자에 제한적이라는 시민 불만이 해소되고, 일상 소비 전반에서 지역화폐 활용도가 높아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천시는 가맹점 기준 확대에 따른 대형 점포 중심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관내 작은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제도를 병행 추진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월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이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약 73%가 작은 가게로, 이번 소비지원금 제도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